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일고찰*

-특히 공명자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박 기 영**

1. 서론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구조의 유사성과 더불어 어휘체계에서 한자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으로 인해 타언어권 학습자들에 비해 서로의 언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발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일본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 그 습득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것은 문법구조의 유사성과는 극을 이룬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서로 다른 음운체계와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유음, 비음 등의 공명자음과 관련해서 볼 때 일본어는 ‘ら[ra], リ[ri], る[ru], れ[re], ろ[ro]’처럼 어두에 [r]발음이 올 수 있으며, ‘ん[N]’이라는 기본적으로 개음절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어는 어두에 ‘ㄹ’이 올 수 없으며, 어말 종성으로 ‘ㄴ, ㅁ, ㅇ, ㄹ’이 모두 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소 배열 혹은 음절 연결에 있어서도 양 언어에 존재하는 제약이 서로

* 본고는 제178회 朝鮮語研究會(일본, 2001. 7)에서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동발표한 것 중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귀중한 조언을 주신 朝鮮語研究會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 서울대 강사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어에서는 ‘ん’[N] 다음에 ‘ら[ra], り[ri], る[ru], れ[re], ろ[ro]’로 시작하는 음소배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공시적으로 ‘ㄴㄹ’이나 ‘ㅁㄹ’, ‘ㅇㄹ’의 음소배열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의 음운규칙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면 ‘꼰란, 삼립, 영리’ 등의 단어를 발음할 때 제2음절의 ‘ㄹ’을 표기대로 뱉음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SLA)에서 학습자는 모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우리는 이것을 모어로부터의 전이(transfer)라고 부르는데,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에서 이 전이의 개념은 언어학 이론의 발달과 더불어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다. 山岡俊比古(1997)에서는 초기의 전이 개념을 ‘고전적 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모어의 언어습관이 습득하고자 하는 언어(목표언어)에까지 연장된다는 것이다. 이때 전이된 습관이 목표언어에서 용인 가능한 것이라면 그 언어습득에 있어서 촉진효과를 가지며 용인불가능한 것이라면 간섭(interference)이 되어 상당한 학습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전적 전이’의 개념에서 모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조분석에 의해 모어와 목표언어의 차이를 밝히고 나면 학습자가 어떠한 오류를 보일 것인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도 일본어권 학습자가 보이는 발음의 오류 중 일부는 이러한 대조분석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한편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에서 단순히 모어로부터의 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대조분석에 의한 오류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제2언어 학습자가 습득한 목표언어 자체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하여 ‘중간언어(interlanguage)’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 ‘중간언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제2언어 학습자가 습득과정 중의 어느 한 시점에서 구축하고 있는 그 언어의 구조적인 규칙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소략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간언어’의 중요한 특징은 나름대로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제2언어의 습득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발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불완전하고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모어나 목표언어에 없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중간언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중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자신들의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영어의 정관사를 사용할 때 ‘this’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한결같이 사용한다고 한다. 음운규칙 중에도 그러한 중간언어적인 특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본고에서도 일본어권 학습자가 보이는 발음의 오류 중에도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본고는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모어로부터의 전이라는 측면과 중간언어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중 특히 공명자음들의 발음에서 보이는 오류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자료수집

본고의 자료수집은 2001년 6월에 2인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두 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한국어 발음을 녹음하였는데 제보자는 일본 慶應義塾大學 湘南藤澤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된 상태였다. 1999년 가을학기와 2000년 봄학기, 가을학기 동안 1주일에 4일 100분씩의 수업을 받아 수업시간은 총 280시간에 이른다. 제보자A는 여학생, 제보자B는 남학생으로서 두 학생 모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뛰어난 편이었다.

조사 항목은 가능한 자음의 모든 환경을 들을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즉 초성 ㄴ-을 듣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후행하는 모음을 단모음에 한정하여 여러 가지로 대체해 가면서 항목을 선정하였다. 항목은 가급적 독립적인 명사나 부사로 하였으나 곡용형이나 활용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688개의 한국어 단어를 필자가 녹음한 후 두 차례씩 들려주고 발음하게 하였으며 단어의 의미는 제시하지 않았다. 녹음된 자료는 필자와 공동작업자가 각각 음성전사(broad phonetic transcription)한 후 일치하지 않는 자료는 다시 함께 듣고 전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가 자연스러운 제2언어 발화 자료로서 대표

성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이 되는 음 또는 음의 연쇄를 다양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 연구방법으로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집의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차후 보다 자연적인 자료수집에 의한 연구의 비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이러한 자료수집 방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본어 모어화자가 보여주고 있는 발음의 오류가 청취 상의 것인지 조음 상의 것인지 아니면 이 둘이 모두 관여하는 것인지 뚜렷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어말 공명음 종성에서 보이는 비음의 오류들은 조음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취 상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 뚜렷한 규칙성을 포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하에서는 먼저 공명음 초성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오류를 어두와 어중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명음 종성을 어말과 어중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식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3. 공명음 초성의 오류 분석

3.1 어두 공명음 초성의 오류 분석

한국어에서 어두에 올 수 있는 공명음은 ㄴ과 ㅁ이다. 제보자들은 이들 ㄴ, ㅁ 공명음 초성에 대해 거의 오류를 보여 주지 않는다. 한국어, 일본어의 어두 환경에서 공히 음소로서 존재하는 ㄴ, ㅁ이 오류를 거의 보여주지 않음을 당연한 것이다.

먼저 초성이 ㄴ인 경우, 제보자A는 86어형 중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다. 제보자B는 80어형 중에서 4개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네군데” [riginri / ljeгинde] “눈치” [munchi / munci]

초성이 ㅁ인 경우, 제보자A는 100개의 어형 중에서 “믿습니다” [bmits'i]

mnida] 한 어형만 오류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B는 98어형 중에 3개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그 오류는 다음과 같다.

“문자” [ninc'a] “믿습니다” [riss'imbida / riss'imbida]

위의 어형만으로 오류의 경향을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여기서는 단지 오류를 보인 어형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3.2 어중 공명음 초성의 오류 분석

어중 공명음의 발음에 관련하여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비음과 반모음 ‘j’사이에서의 /ㄴ/의 발음과 모음 간 /ŋ/의 발음이다. 비음과 반모음 ‘j’사이에서의 /ㄴ/의 발음과 관련된 오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 ㄱ. 제보자B : ① “썼내요” [soŋ.jejo / soŋ.jejo] “뺐내요” [p'oŋ.jejo] “분뇨”[phun.ju / pun.jo]
 ② “급료”[kim.jo]
 ③ “학력”[haŋ.jæk / han.jæk] “당뇨”[thaŋ.ju / thaŋ.ju]
 “먹내요”[məŋ.jejo / məŋ.jejo] “용례”[jon.je / joŋ.je]
- ㄴ. 제보자A, B : 찌내요 [c'iŋejo]

위 자료 ㄱ)의 예들은 ‘N\$ŋjV’의 환경에서 제보자B가 보이는 오류들이다.¹⁾ ㄱ①)의 예는 선행음절의 종성이 ㄴ인 경우인데, 발음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선행음절의 비음 ㄴ은 ㅇ으로 오류를 보이거나 제대로 발음되고 후행음절의 초성에는 반모음 j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ㄱ②③)의 예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ㄱ②)의 예는 선행음절 종성이 ㅁ인 경우이고, ㄱ③)은 선행음절 종성이 ㅇ인 경우이다. “학력”的 경우, ㄱ①)과 반대로 선행음절 종성에서 ㄴ으로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선행음절 종성이 비음이고 후행음절의

1) 제보자A의 경우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A : 썼내요. [soŋnejo] 땏나 [t'əŋna]/[t'əŋna] 뺏내요[p'oŋnejo]

모음이 j계 이중모음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있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비음 다음에서 음절경계(혹은 휴지)를 유지한 채 반모음 j의 실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B의 “급료, 분뇨”의 발음을 들어보면 선행음절의 종성 ㅁ, ㄴ이 결코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될 VŋV 환경에서의 오류 중에 /ŋ/이 ㄴ으로의 오류를 보여주는 경우와는 다른 것인데, VŋV 환경에서 나타나는 ‘ㄴ’으로의 오류는 후행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어 재음절화를 보여준다(“성우”[so.nu], “성에”[so.ne]).

위의 예들에서 재음절화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어의 摚音 [N]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어에서 [N]의 경우 언제나 그 뒤에 음절경계가 나타나는데 위의 예들에서 선행음절의 종성으로 나타나는 비음이 일본어의 摚音 [N]으로 대치되고 나서 그 뒤에 음절경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음과 반모음 j 사이에서 ‘ㄴ’이 탈락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우리는 모어의 음소배열제약이나 음절연결제약이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어에는 ‘nje’와 같은 음소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摚音[N] 다음에 연결될 수 있는 ‘n+반모음’은 ‘nja, nju, njo’의 세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N]+nja’의 경우 ‘蒟蒻(konnjaku), 般若(hannja)’ 등 몇몇 어휘에서만 발견되어 매우 제한된 분포를 보여준다.

그러나 ‘nja, nju, njo’와 같은 음소배열은 존재하며 ‘[N]+nju’의 경우는 일본어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음절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新入生sin-njusei, 混入konnyu:).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 분뇨”的 예에서 보듯이 모음을 ‘nju’로 잘못 발음하면서도 비음과 반모음 사이에서 ‘ㄴ’을 탈락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어에 있는 자연스러운 음절 연결 자체를 무시하면서 나타나는 중간언어 고유의 현상이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국 ‘N\$njV’ 환경에서 나타나는 음절경계의 배당이나 ‘ㄴ’의 탈락은, 그동기는 일본어의 摚音 [N]의 속성 및 음절연결 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것 이지만 그것이 제보자B의 중간언어에서는 모어의 자연스러운 음절연결에까

지 체계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ㄴ)의 경우는 ㄱ)과는 그 환경이 다르다. 'VnjV'의 환경에서 보이는 오류 인데 비록 단 하나의 항목이지만 흥미롭게도 제보자A, B가 동일어형에서 2 회씩 반복하여 [c'iŋejo]로 발음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본어 모음 간에 'nge'라는 음소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구나 ㄱ)의 경우처럼 다른 경우로 확대되어 나타나지도 않고 한 어형에서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영향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은 모음 간 [ŋ]의 조음적 특징과 일본어 발음 摭音 /N/의 조음적 특징의 유사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일본어의 摭音 /N/은 뒤에 오는 음에 따라 위치동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모음이나 반모음 앞에서의 조음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음 간 혹은 모음과 반모음 사이의 摭音 /N/은 조음시에 구강 내를 폐쇄시키지 않고 구강, 비강을 통해서 기류가 계속 흘러나가기 때문에 기류의 끊어짐이 없이 후속음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信用, 單位” 등의 일본어 발음은 각각 /fiNjo://[ʃiŋjo:], /taNi/[taŋi]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村木正武・中岡典子(1990)). [ŋ]이 모음 사이에서 잘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것도 [ŋ]의 폐쇄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폐쇄성의 약화 가능성이 모음 간에서 일본어의 /N/이 보여주는 음의 특징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번에는 ○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보자A	제보자B
전체 오류	9/36	11/36
오류 유형	ㄴ으로의 오류:3 ㄱ으로의 오류:6 기타 :0	ㄴ으로의 오류:4 ○탈락의 오류:4 기타 :3

<표1>

<표1>에서 보듯 제보자A는 전체 36어형 중에서 9어형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제보자B는 11어형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오류 유형을 살펴보

면 먼저 제보자A, B 공통으로 ㄴ으로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오류 어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A : “봉우” [punu] “평온” [phjənoŋ / phjənon]

제보자B : “성예” [sone] “승인” [sunij] “달팽이” [talpheni] “성우” [sonu]

이들은 모음간의 ㅇ을 ㄴ으로 잘못 발음한 것들인데 환경에 따른 경향성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두 제보자 모두 모음간의 ㅇ발음을 아직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공명음 종성의 발음을 기술할 때 언급하겠지만 두 제보자 모두 공명음 종성이 ㅇ일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에 따른 차이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런 공명음 종성의 특징이 모음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두 제보자간에 차이를 보이는 오류 유형으로서 ㄱ으로의 오류과 ㅇ탈락의 오류 유형이 있다. 먼저 그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보자A : “농아” [nogat] “승인” [sugin / sigin] “담쟁이” [tamdʒegi]
“잉어” [igo] “냉엄” [negəm]

제보자B : “농아” [noak] “땅덩이” [t'ant'aɪ] “뻥을” [p'āɪl / p'āɪl]
cf. “배짱이” [kwecanji / k'wecharji] “땅덩이” [t'antəŋi]
“담쟁이” [tamdʒenji] “달팽이” [talp'enji]

제보자A의 경우 모음간 [ŋ]을 [g]로 발음하는 오류를 보여주며 제보자B의 경우는 [ŋ]을 탈락시키는 오류를 보여준다. ‘뻥을’의 경우는 탈락하면서 전후 모음을 비음화시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제보자A가 보여주는 [g]로의 오류는 일본어 모어로부터의 전이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일본어에서 연구개 유성 폐쇄음[g]는 어두에서 나타나며(예. “學校” [gakkō]) 연구개 비음 [ŋ]은 어중에서만 나타나(예. “小學校” [soŋgakko:]) 한 음소 /g/의 변이음으로서 존재하는데, 어중의 연구개 비음 [ŋ]은 세대차를 보여 짊은 세대의 경우는 [g]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제보자A는 이러한 일본어의 음성적인 특징을 한국어 발음에 그대로 전이시킨 오

류를 보여 주고 있다.²⁾

한편 제보자B는 모음간에서 [ŋ]을 탈락시키고 있다. “뺑을”의 경우는 전후모음을 비음화시키고 탈락하고 있고, “농아”, “땅덩이”的 경우 완전히 [ŋ]의 탈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어의 摩音 /N/이 모음간에서 보여주는 변이음적 특징과는 좀 다르다. 만약에 모음간의 /N/발음으로부터의 전이라면 위의 “찌내요”的 경우처럼 적어도 비음화모음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탈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모음간에서 [ŋ]을 탈락시키는 비음 탈락 현상은 조음음성학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ŋ]은 후설과 연구개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발음되는데 연구개는 살이 무른 부분이고 후설은 혀의 앞부분보다 움직임이 둔하여 연구개에 붙었다 때는 동작이 약간 힘이 든다. 게다가 후설과 연구개를 붙여 후두를 통해 나오는 기류를 막아 가두는 구강의 공간은 극히 좁기 때문에 비강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남은 공기가 이곳에서 만드는 압력은 후설을 연구개에서 떼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ŋ]은 그 폐쇄성을 모음 사이에서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보자B가 보여주고 있는 오류형들은 일본어 摩音 /N/이 모음 사이에서 보여주는 변이음적 특징이 전이되었다기보다는 제보자B의 [ŋ]에 대한 불확실한 인식과 모음간 [ŋ] 자체의 조음음성학적 특징이 맞물려 빛어낸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우리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모음 사이에서 한국어의 연구개 비음을 발음할 때에 두 가지 기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일본어의 음소 /g/가 보여주는 변이음적 특징 및 어중 연구개 비음 [ŋ] 대신 [g]를 발음하는 경향의 확대 등에 의한 전이이고, 다른 하나는 모음간 [ŋ]의 조음음성학적 특징에 의한 오류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제보자A, B가 위의 두 가지 전이 중 한 가지씩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사된 어형 자체가 36어형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 위와 같은 오류를 보이는 것이 6어형, 4어형으로 적기 때문에 일본어 모어 화

2) 더구나 이런 현상은 일본에서 주로 동경을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보자 A가 동경출신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이 부분의 설명은 배주재(1994:1998)을 참조한 것이다.

자가 모음간에서 한국어의 연구개 비음을 발음할 때에 위의 두 기체를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한 가지만 사용하게 된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두 기체에 의한 오류 중에서 제보자A는 적어도 [ŋ]이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g/에 의한 전이를 보여준 데 반해 제보자B는 모음간 [ŋ]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과 맞물려 [ŋ]의 조음음성학적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중간언어를 목표언어에 도달해 가는 과정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 서면 제보자A가 모음간 ㅇ의 발음에 관해서 제보자B보다도 상대적으로 목표언어에 가까운 중간언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제보자B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ŋ]의 조음음성학적 특징에 의한 오류는 초기 단계의 중간언어체일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제보자B는 후술할 자음 앞 연구개 비음 종성 ㅇ의 발음에서 제보자A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은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같다.

4. 공명음 종성의 오류 분석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가장 어려운 한국어 발음 중의 하나가 종성의 ㄴ, ㅁ, ㅇ이다. 국어에서는 ‘ㄴ, ㅁ, ㅇ’이 음절말에서도 음절초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음소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어에서는 음절말에서 오직 일본문자 ‘ん’으로 대표되는 摭音 [N]만이 실현되기 때문이다(고영근 1970). 그 중에서도 특히 ㄴ, ㅇ의 구별은 ‘절망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管野裕臣 1991). 여기서는 제보자A, B가 보여 주는 비음 종성을 먼저 1음절인 경우와 2음절인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어말 공명음 종성의 오류 분석

어말 유음의 오류는 제보자B에게 몇 예만이 보일 뿐이며, 오류의 결과도 다양하여 경향성을 포착해내기가 어렵다.

- r̥ “땅굴” [t'apŋk'ur̥] “씁쓸” [sips'iri]
 cf. “길쭉” [kirijuk] “갈더라” [karidera] “질겅” [c'irigon]
 “길목” [kirimok]
- r “몰골” [molgor]
- l? “탈출” [phalchil?] “몰골” [molgol?]
- ? “잡필” [capphi?]
- ø “울” [u / u]
- m “둥실” [thoŋsim / thoŋsim]

가장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류는 아마도 모음을 삽입한 r̥로의 오류가 아닐까 싶은데, 이는 어중 유음 종성의 오류어형을 보아서도 그리하다. cf.에 제시된 예들 역시 제보자B의 오류인데, 모음을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이밖에 탈락이나 성문음화, □으로의 오류는 그 기제를 알 수가 없다.

어말 비음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음절수	□		ㄴ		○		계
A	1음절어	1/26 (3.8%)	3/76 (3.9%)	2/14 (14.3%)	34/128 (26.6%)	9/16 (56.3%)	66/128 (51.6%)	103/332 (31.0%)
	2음절어	2/50 (4.0%)		32/114 (28.1%)		57/112 (50.9%)		
B	1음-절어	1/28 (3.6%)	19/78 (24.4%)	1/14 (7.1%)	29/128 (22.7%)	11/16 (68.8%)	73/138 (52.9%)	121/344 (35.2%)
	2음-절어	18/50 (36.0%)		28/114 (24.6%)		62/122 (50.8%)		

<표2>

두 제보자에게 있어서 ○이 절반을 넘는 오류를 보이고 있음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1음절어와 2음절어 및 후술할 선행음절 환경을 막론한 것이

4) 어중 종성의 □의 오류어형으로는 이 밖에 제보자B의 “질량” [cintljan], “실례” [simri]가 더 있는데, 이는 한국어 표기 ‘ㄴ-ㄹ’과 발음 /ㄹ-ㄹ/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어서 어말 비음 중 ○을 가장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한 오류 경향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⁵⁾

ㅁ과 ㄴ은 제보자 및 음절수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A는 음절수와 상관없이 ㅁ에서 매우 적은 오류를 보이며, ㄴ의 경우는 2음절 어에서 조금 더 오류를 많이 보인다. 반면 제보자B는 음절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ㅁ과 ㄴ 모두 1음절어일 때에는 오류가 많지 않으나 2음절어에서는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음절수가 어말 비음의 오류에 관여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말종성	제보자A			제보자B		
	ㅁ	ㄴ	○	ㅁ	ㄴ	○
선행음절종성						
ø (모음)	0/10	5/30	8/16	2/10	8/30	9/16
장애음	0/0	0/10	7/16	0/0	2/10	8/16
유음	0/6	1/7	10/18	2/6	1/8	11/18
비음	2/34	26/66	32/72	14/34	17/66	34/72

<표3>

<표3>은 비음 말음 2음절어의 오류를 선행음절 종성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선행음절 종성이 비음일 때에 어말 비음의 오류가 많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의 경우는 선행음절 환경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의 경우 가장 발음의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음절의 비음 종성이 어말 비음의 발음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하에 이들을 제외한 어말 비음(1음절어도 포함)의 오류율을 살피면, 제보자A는 ㅁ

5) 한편 고영근(1970)에서는 1969년 ‘서울대학교 在日僑胞留學生豫備教育課程部’에서 6개월간 모국어교육을 받은 학생들 5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문자로 받아쓰기 실 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ㄴ’을 ‘○’으로 잘못을 범하는 일이 가장 많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고의 실험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서 1/42(2.4%), ㄴ에서 8/61(13.1%)의 오류를 보이며, 제보자B는 ㅁ에서 5/44(11.4%), ㄴ에서 12/62(19.4%)의 오류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ㄴ보다는 ㅁ에서 오류가 적다는 것은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말 장애음에서 ㅂ의 오류가 가장 적다는 사실과도 평행적이다. 아울러 ㄴ과 ㅇ의 오류 중에서 ㅁ으로의 오류가 매우 적다는 것도 어말 장애음의 오류경향과 일치한다.⁶⁾

ㅁ과 ㄴ은 선행음절 종성이 비음일 때에 오류가 많아지는 반면 ㅇ은 오류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 ㅇ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ㅁ과 ㄴ이 선행음절 종성의 환경에서 보이는 오류율보다 높은 오류율을 보이기 때문에, ‘선행음절 종성이 있을 경우 어말의 비음에 오류를 많이 보인다’는 기제가 작용을 하였다고 해도 수치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어말 비음의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말 비음의 오류 경향]

- (1) 어말 비음 중 ㅇ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인다.
- (2) 어말 비음 중 ㅁ을 가장 잘 발음한다.
- (3) 선행음절 종성이 비음일 때에 어말 비음의 오류가 많다.

‘ㄴ’보다 ‘ㅇ’에서 더 많은 발음의 오류를 보여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어와 일본어가 음소와 변이음의 관계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한다. 한국어에는 음소로서 /ㅇ/이 존재하여 어말 종성에 나타나지만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의 /ㅇ/과 같은 음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ŋ]이 위치변이음으로서 어중에서 연구개음 앞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출현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와 같은 어말 종성 위치에서 개인에 따라 [ŋ]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어말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摳音 /N/의 변이음인 [n]이다. [ŋ]이 변이음

6) 고영근(1970)의 실험 결과에서도 ‘ㅁ’의 경우가 ‘ㄴ, ㅇ’의 경우보다는 오류가 적게 나타나고 있다.

으로서 존재하기는 하되 출현환경이 한국어의 경우보다 훨씬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음소체계에 없는 새로운 음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한편 ㄴ의 경우는 비록 [ŋ]과 마찬가지로 어중에서 /N/의 변이음으로 나타나지만 [+설정성]의 자음 앞이라는 환경이 보여주듯 그 분포는 [ŋ]보다 훨씬 다양하며 음절 초성에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소로서 존재한다. 또한 언어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비음의 위치는 치조이다. 이렇게 음소로서의 존재와 위치변이음이 보여주는 상대적으로 넓은 분포, 그리고 언어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조음위치라는 점이 ○보다도 ㄴ의 오류가 적게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경향 (3)과 같은 선후행음절간의 영향은 어두 장애음 초성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즉 후행음절 초성이 격/경음일 때 그 긴장성이 선행음절 초성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격/경음으로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비음의 경우는 선행음절의 비음이 후행음절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방향에서는 어두 장애음 초성과 반대인데, 일본어의 어중 비음이 위치변이음적인 존재이고 어말 종성에 ㄴ, ロ의 음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어두 장애음 초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음절의 음상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말 비음 종성의 오류가 언제나 선행음절의 비음과 동일한 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선행음절의 종성에 일본어의 위치변이음이 아닌 다른 비음 종성들이 있을 때 제보자들이 후속음절의 비음 종성 발음에 훨씬 부담을 많이 받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고자 한다.

4.2 어중 공명음 종성의 오류 분석

일본어 모어화자가 한국어의 어중 자음연쇄 그 중에서도 특히 ‘비음+자음’을 발음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모어의 전이 현상은 일본어의 摳音 ‘ん’ /N/의 위치동화의 전이이다. 일본어의 음소 /N/은 후속 자음의 영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역행동화를 일으킨다.

ⓐ [m]…양순음 [p],[b],[m] 앞에서

예) えんぴつ[empitsui](연필), とんぼ[tombo](잠자리),
さんま[samma](꽁치)

⑥ [n]…치조음 [t],[d],[n],[ts],[dz] 앞에서

예) はんたい[hantai](반대), おんな[onna](여자), かんじ[kanji](한자)

⑦ [ŋ]…연구개음 [k],[g],[ŋ] 앞에서

예) にんき[ninki](인기), まんが[manga](만화)

그러므로 이 위치에서의 오류를 살펴볼 때에는 전체 오류율, 그리고 위치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실제로 위치동화가 일어난 정도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		ㄴ		○	
	전체 오류	위치동화	전체 오류	위치동화	전체 오류	위치동화
제보자A	8/188 (4.3)	7/150 (4.7)	59/204 (28.9)	38/84 (45.2)	71/201 (35.3)	60/163 (36.8)
제보자B	17/188 (9.0)	13/150 (8.7)	40/202 (19.8)	17/83 (20.5)	136/202 (67.3)	107/165 (64.8)

<표4>

먼저 전체 오류를 살펴보면 두 제보자 모두 종성 □에서 가장 오류가 적고 그 다음 ㄴ, ○의 순서로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은 ㄴ, ○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오류가 없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어중 공명음 종성에서도 다른 위치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제보자 모두 □을 제대로 발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보자B는 ○에서 제보자A의 두 배 가까운 오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제보자B가 모음간, 어말, 어중 자음 앞이라는 환경에서 제보자A보다 상대적으로 ○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일본어 摭音 /N/의 전이가 더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위치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 중에서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역시 ㅁ에서 거의 위치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ㅇ은 제보자A, B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보자A는 ㄴ이 위치동화될 만한 84어형 중에 38개(45.2%)에서 위치동화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으며, ㅇ의 경우는 위치동화가 가능한 163어형 중에 60개(36.8%)에서 위치동화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제보자A는 ㄴ의 위치동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B는 ㄴ이 위치동화될 만한 83어형 중에 17개(20.5%)에서 위치동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ㅇ의 경우에는 165어형 중에 107개(64.8%)가 위치동화를 보여주고 있어 ㅇ에서 위치동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류의 양상을 후행음절 초성의 환경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C1	C2	전체	제보자A의 오류			전체	제보자B의 오류		
			전체오류	위치동화	기타		전체오류	위치동화	기타
ㅁ	ㄱ	30	0	0	0	30	0	0	0
	ㄷ	36	2	2	0	36	6	6	0
	ㅂ	28	1	0	1	28	3	0	3
	ㅅ	24	1	1	0	24	5	4	1
	ㅈ	38	4	4	0	38	1	1	0
	ㄴ	22	0	0	0	22	2	2	0
	ㅁ	10	0	0	0	10	0	0	0
ㄴ	ㄱ	38	20	20	0	37	9	8	1
	ㄷ	40	4	0	4	40	4	0	4
	ㅂ	32	19	17	3	32	13	8	5
	ㅅ	18	5	0	5	18	5	0	5
	ㅈ	36	3	0	3	35	1	0	1
	ㄹ	26	4	0	4	26	6	0	6
	ㅁ	14	4	1	3	14	2	1	1
ㅇ	ㄱ	38	5	0	5	38	8	0	8
	ㄷ	40	20	19	1	40	38	37	1
	ㅂ	32	13	13	0	32	28	15	13
	ㅅ	19	8	7	1	21	14	14	0
	ㅈ	34	19	15	4	34	22	20	2
	ㄹ	28	6	6	0	28	19	18	1
	ㅁ	10	0	0	0	10	8	3	5

<표5>

ㅁ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오류가 다른 비음 종성에 비해 적다. 그런데 그 적은 오류들이 [+설정성] 자음 앞에서의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는 많이 보여주지만 후행음절 초성이 연구개음인 경우에는 두 제보자 모두 오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연구개 장애음, 연구개 비음 모두 동일하다.

ㄴ의 경우에는 연구개 장애음과 양순 장애음 앞에서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제보자A의 경우 양순음 앞에서 32어형 중 19개(59.3%)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17어형(89.5%)이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연구 개 장애음 앞에서는 38어형 중 20(52.6%)개에서 오류를 보이고 있으며 모두가 위치동화된 것들이다. 제보자B의 경우는 양순 장애음 앞에서 32어형 중 13개(40.6%)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8개(61.5%)에서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를 보여준다. 연구개 장애음 앞에서는 37어형 중 9개(24.3%)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8어형이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이다. 제보자A, B간에 오류율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후행음절 초성이 양순음, 연구개음일 때 위치동화에 의해 나타나는 오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경향성은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순 비음 앞에서는 제보자A가 14어형 중 4개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1어형만이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이고, 제보자B는 14어형 중 2개에서만 오류를 보이며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는 1어형에서 보일 뿐이다. 양순 비음의 경우 후행음절이 양순 장애음인 경우에 비해 오류나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매우 적다.

한편 ㅇ의 경우 설정 장애음과 양순 장애음 앞에서 많은 오류를 보인다. 제보자A의 경우 [+설정성] 장애음 앞에서 93어형 중 47개(50.5%)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41어형(87.2%)이 위치동화된 오류이다. 양순 장애음 앞에서는 32어형 중 13개(40.6%)에서 오류를 보이며 모두 위치동화에 의한 것이다. 한편 제보자B의 경우 [+설정성] 장애음 앞에서는 95어형 중 74개 (77.9%)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71어형(95.9%)인 반면 양순 장애음 앞에서는 32어형 중 28개(87.5%)에서 오류를 보이고 그 중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15어형(53.6%)이다. 제보자B가 양순 장애음 앞에서 보여주는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율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체적으로 후행음절 초성이 설정음, 양순음일 때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많이 나타난다는 경향성을 지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데 설정 비음, 양순 비음 앞에서는 제보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일정한 경향성을 말하기가 어렵다. 먼저 설정 비음의 경우 제보자A는 28여형 중 6개(21.4%)에서 오류를 보이고 그 6여형이 모두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를 보여준다. 한편 제보자B는 28여형 중 19여형(67.9%)에서 오류를 보이며 그 중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18여형(94.7%)이다. 양순비음의 경우 제보자A는 오류를 보이지 않는다. 제보자B는 10여형 중 8개(80%)에서 오류를 보이며,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는 3여형(37.5%)이다. 제보자B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제보자A의 경우는 설정 비음 앞에서는 오류 자체가 적고 양순 비음 앞에서는 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아서 설정 장애음인 경우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후행음절 초성이 장애음일 때, 선행음절 종성 ㄴ는 연구개음과 양순음에서, ㅇ은 설정음과 양순음 앞에서 오류를 많이 보이며 그 오류 중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행음절 초성이 비음인 경우에는 장애음의 경우처럼 뚜렷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 듯하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ㄴ은 ㅁ 앞에서 오류도 많지 않고 위치동화도 거의 없으며 ㅇ은 ㄴ, ㅁ 앞에서 제보자에 따라 전혀 다른 오류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가 일본어 摳音 /N/의 위치동화에 의한 전이라면 왜 후행음절 초성이 장애음인 경우에는 더 활발하며 후행음절 초성이 비음인 경우에는 장애음만큼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현재로는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제보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후행음절 초성이 장애음이냐 비음이냐에 따라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현재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좀더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정리

지금까지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발음 중 특히 공명자음들에

나타나는 발음 오류에 대하여 그 유형을 살펴보고 그런 오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명자음 초성의 경우

어두 공명음 초성의 경우 거의 오류를 보이지 않으며 설사 오류가 있다 해도 그 경향성을 포착할 정도의 오류라고는 볼 수 없었다.

어중 공명음 초성의 경우, 우리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N\$njV'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음절 경계와 'ㄴ'의 탈락 현상이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가 나타나게 된 동기는 1차적으로 일본어의 撥音 [N]의 속성 및 음절 연결 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것이 제보자B의 중간언어에서 모어의 자연스러운 음절 연결에까지 체계적으로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중간언어만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목하였다.

한편 “찌내요”와 같은 ‘VnjV’의 환경에서 두 제보자가 동일하게 보여주는 [c'inejo]라는 오류형에 대해서도 ‘nje’라는 음소연결이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모음 간 [ŋ]의 조음적 특징과 일본어 발음 撥音 /N/의 조음적 특징의 유사성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VŋV의 환경에서는 제보자A, B가 ㄴ으로의 오류라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각각 [g]로의 오류, [ŋ] 탈락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일본어에서 음소 /g/가 갖는 변이음적 특성 및 어중 [ŋ]을 [g]로 발음하는 일본어 내의 변화 경향이 영향을 끼친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ŋ]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과 [ŋ]의 조음음성학적인 특징이 맞물려 빚어낸 것으로 보았다.

공명자음 종성의 경우

비음 종성의 경우 어말, 어중 종성 공히 양순비음 ㅁ의 경우 가장 오류가 적었다. 어말의 경우 ㄴ, ㅇ의 순으로 많은 오류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ㄴ 및 ㅇ의 분포상의 차이와 ㄴ이 비음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지위를 갖는 것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어말 공명음 종성의 경우 선행음절이 종성이 비음인 경우에 어말 비음의 오류가 상당히 많은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어두 장애음 초성의 경우에도 후행음절의 경음, 격음이 어두 장애음 초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평행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어중 비음 종성의 경우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를 많이 보여주었다. 다만 위치동화에 의한 오류에 있어서 후행음절 초성이 장애음인 경우는 제보자A, B 모두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으나 후행음절 초성이 비음인 경우에는 제보자A, B 간에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것이 제보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후행음절의 초성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는 더 많은 조사를 필요로 한다.

유음의 경우는 모음을 삽입하는 ri로의 오류 경향 이외에는 어떤 일반성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본고에서 살펴본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기술이 일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별개의 또 다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틀리기 쉬운 발음을 연습하기 위한 어휘들을 따로 선별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며 그 교재를 통한 발음교육 교수법 또한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그러한 과정 중의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에 지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참고논저

- 고영근(1970), 「한·일어의 비교분석」, 『언어교육』 2: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정숙(1990), 「일본인의 한국어 학습시 나타나는 음운론적 오류분석」, 『한국어 학신연구』, 한신문화사.
- 배주채(1994;1998), 『고통방언 음운론』(국어학 총서320, 태학사).
- 이경희·정명숙(1999), 「일본인의 한국어 파열음에 대한 지각 단서」, 제19회 학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요지.
- 정미지(2000),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음·격음·경음 발음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管野裕臣(1991),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수 방법」, 『교육 한글』 4, 한글학회.
- 柳部榮次(1997), 「日本人의 韓國語 子音同化 發音現象에 관한 研究」, 조선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小泉保(1996), 『音聲學入門』, 大學書林.
- 服部四郎(1951), 『音聲學』(岩波全書131), 岩波書店.
- 村木正武·中岡典子(1990), 「撥音と促音—英語・中國語話者の發音」,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3』, 明治書院.
- 山岡俊比古(1997), 『新装改訂版 第2言語習得研究』, 桐原ユニ.
- Rod Ellis(1994),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金子朝子 譯
(1996), 『第2言語習得序説-學習者言語の研究』, 研究社出版.